

다른 i

## S#1 학교 첫째날

교실 앞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채유.  
바닥을 보고 교탁까지 걸어와 선생님 옆에 선다.

**채유**    **안녕 난..**

계속 바닥을 보며 말하던 채유가 고개를 들고 말을 멈춘다.  
채유에게 보이는 교실 풍경,  
모든 학생들이 검은 목폴라에 청바지를 맞춰입은 모습이 보인다.  
몇 초간 말이 없는 채유의 등을 아이패드로 톡톡치는 선생님.

**선생님**    **(아이패드로 채유의 등을 치며) 다했으면, (턱으로 빈자리를 가리킨다.)  
가서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자리로 가는 채유.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채유를 빤히 응시한다.

자리에 앉은 채유. 그제서야 혼자만 교복차림인 걸 알아챈다.  
자기 옷과 옆사람 옷을 번갈아 보던 채유가 정면을 보고 줌아웃 되는 화면.  
혼자만 교복을 입고 튀는 채유의 모습이 보인다.  
그 때 수업 종이 치고 반 아이들이 도미노처럼 교과서를 꺼낸다.  
교과서 표지에 크게 보이는 스티브잡스의 얼굴.  
장면 페이드아웃되고 채유는 그대로, 아이들이 채유를 둘러싸는 장면 페이드인.  
아이들 사이에서 가식적으로 웃고있는 채유.

(v.o) 아이들의 기괴한 웃음소리

## S#2 학교 둘째날

학교 야자시간.

채유에게 갑자기 사진을 찍자며 보채는 옆자리 친구.

**친구1 (뚝뚝 끊기는 말투로) 우리 반 단체사진. 찍자.**

**친구2 채유, 폰?**

**채유 아.. 그래!**

채유가 책상서랍을 뒤적거리다가 휴대폰을 꺼낸다.

한 눈에 봐도 최신형은 아닌듯한 LG 로고가 박혀있는 채유의 핸드폰.

반 아이들의 시선이 한 번에 채유의 핸드폰으로 쏠린다.

아무 말도 없이 덩그러니 꺼내져 있는 핸드폰만 바라보는 반 아이들.

부담스러운 시선에 채유가 급하게 폰을 집어넣는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다가 채유를 등지고 떠들기 시작하는 아이들.

장면에서 채유 혼자 위화감이 느껴진다.

그대로 책상에 엮드리는 채유,

엮드려있던 채유가 일어난다.

주변은 조용해져있고 앞문이 열린다.

젊은 남자선생이 들어오고 선생은 아이들을 쳐다도 보지않고 교탁에 선다.

가져온 맥북을 교탁에 올려놓고 켜는 선생.

아무 말 없이 켜진 맥북화면을 아이들 쪽으로 돌린다.

**남자 선생**

**수업, 시작합니다.**

수업종이 치고 맥북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조용한 교실 안 혼자 울려퍼지는 기계음에 괜히 눈치를 보는 채유.

아이들은 또 도미노처럼 자신의 맥북을 책상 위로 꺼내든다.

그러던 중 맨 뒷자리에서 쿵 소리가 나고 동시에 뒤를 돌아보는 아이들.

친구4가 맥북을 꺼내던 중 떨어뜨려 맥북이 산산조각난다.

몇 초의 정적이 흐르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친구4.

친구4 시점(샷) 뒤돌아서 친구4를 한꺼번에 응시하는 아이들.

하지만 곧장 다시 앞을 본다.

채유만 친구4를 계속 보고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채유와 반 아이들.  
집정리를 하며 떠드는 친구들과 달리 문 앞에 서서 가만히 교실을 응시하는 채유.  
친구4의 책상이 사라진 걸 인지하고 표정이 굳는다.

### S#3 학교 셋째날

빈교실. 맨 뒷자리에 맥북 하나가 열려있다.  
*Insert) 백조스티커가 붙어있는 맥북 클로즈업*  
앞문으로 들어오는 채유.  
딩그러니 놓여있는 맥북을 쳐다보다가 맥북이 놓인 자리로 가서 앉는다.  
화면 속에 켜져있는 포토부스.  
갤러리에 영상 하나가 있다.  
영상을 플레이하는 채유.

영상 화면깍차게)  
친구4가 뒷문에서부터 점점 뒷걸음질치고 사람같지 않은 형태의 남자가 들어와 친구4를 끌고가려는 모션을 취한다.  
영상을 멈추는 채유.  
멈춰진 화면엔 붙잡힌 친구4가 맥북 카메라를 간절하게 쳐다보고있다.  
아이들이 복도에서 웅성대는 소리자 들려오자 탁 하고 맥북을 닫는 채유.  
잠깐 두리번대다가 겁먹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는다.  
카메라 아이레벨로 내려가며 채유 다리를 비춘다.  
다리를 떠는 채유.

다시 아이레벨 올라오며 옆드려있는 채유 줌.  
채유가 고개를 번쩍 든다.  
꿈을 꾸 듯 한 모습, 주위엔 아무도 없다.  
고개를 들자 칠판에 보이는 글씨

*내일까지 맥북 준비  
없을 시 수업참여 불가능*

멍하니 칠판을 응시하던 채유.  
정신이 나간 것처럼 벌떡 일어나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려 한다.  
뛰어나가던 채유, 문을 열고 들어오던 민석과 부딪힌다.

채유 (겁먹고 놀란 표정) 너..민석이.. 니가 왜 여기있어?

민석 너...(한숨을 쉰다.)

민석이 눈치를 보다가 채유를 끌고 어디론가 간다.

교실 밖으로 나간 민석과 채유.

채유 (민석의 팔을 잡으며) 이게 뭐하는,

민석 (채유의 말을 끊고 팔을 쓱 밀며) 너, 맥북도 없지?

채유 응?

민석 그거.. 어떻게든 구해. 그리고 최대한 눈에 띄지마.

채유 뭐? 아니, 못구하면?

소리 뮤트되고 무언가를 말하는 입모양의 민석 줌인.

뒤이어 채유 놀라는 반응샷.

다시 소리 들어옴.

카메라 채유 비추기

(v.o)

#### S#4 학교 밖 점프샷

몽타주

민석과 채유가 핸드폰을 보며 열심히 무언가를 찾는다.

중고거래 약속을 잡는 두 사람.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얼마 되지않는 돈으로 중고맥북을 구하려 한다.

Cut to

돈을 들고 튀는 사기꾼을 쫓는 두 사람

중고거래 장소에서 맥북을 쳐보고 쳐지지 않자 맥북을 퍽퍽 때리는 두 사람

꺾아달라며 두 손을 싹싹 빌다가 퇴짜맞는 채유

꺾아주지 않는 판매자 뒷통수에 뺨뺨을 날리는 채유. 말리는 민석.

맥북을 못구해 시무룩한 채유를 위로해주는 민석

민석     이러니까 우리 중학교때 생각나네

(둘이 정말 의지하고 거의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야 함)

## S#5 학교 넷째날

결국 한 눈에 봐도 최신모델이 아닌 옛날 맥북을 겨우 구한 채유.

아침 일찍 교실로 혼자 들어온다.

한숨을 푹 쉬고 자리에 앉는 채유.

채유의 눈에 민석의 자리가 들어온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된 책들과 옆에 놓인 최신형 맥북.

채유 민석의 자리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다리를 떨기 시작한다.

카메라 아이레벨 내려가면서 심하게 떨리는 채유의 다리 클로즈업.

채유의 다리가 갑자기 푹 멈추고 카메라 그대로 올라온다.

채유의 책상에 놓여진 민석의 새로운 맥북.

맥북에서 줌아웃되며 아이들로 꽉 찬 교실.

종이 치고 동시에 민석이 교실로 뛰어들어온다.

채유를 보고 활짝 웃다가 표정관리하는 민석.

어딘가 불편한 표정의 채유.

뒤에 오는 선생님을 보고 자리로 후다닥 달려가는 민석.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서고 맥북을 세팅한다.

자리에 앉고 맥북이 없어진 걸 알아챈 민석이 미친듯이 가방을 뒤지기 시작한다.

가방을 뒤집어 탈탈 털어봐도 나오지 않는 맥북.

두리번대던 민석.

그 때 채유가 에어팟 한 쪽을 떨어뜨린다.

에어팟을 줍다가 민석과 눈이 마주치는 채유.

어이없고 간절한 표정의 민석.

채유는 에어팟을 그대로 놓고 고개를 돌려버린다.

채유를 향해 의자를 박차고 뛰어가려는 민석의 앞을 선생님이 가로막는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 선생님을 밀치고 뒷문으로 뛰어나가는 민석.

1)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뒷문을 쳐다보다가 한꺼번에 일어나서 민석을 쫓아간다.  
옥상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석.  
문을 잠그려다 아이들에게 밀쳐져 옥상 구석까지 몰아세워진다.  
일제히 핸드폰을 꺼내 민석에게 들이치는 아이들.  
셔터음이 시끄럽게 들린다.  
점점 뒷걸음질 치던 민석. 결국 옥상 밑으로 떨어진다.  
민석이 떨어지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넣는 아이들.  
가만히 옥상 밑을 응시한다.

떨어진 민석 줌 인.

(v.o) 아이들의 기괴한 웃음소리

혼자 덩그러니 교실에 남겨져있는 채유.  
멍하니 자신의 책상에 올려진 민석의 맥북을 쳐다본다.

2)

선생님이 민석을 쫓아간다.  
민석의 뒤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선생님.  
다리가 풀려 잘 가지 못하는 민석의 어깨를 잡고 밀친다.  
앵글 밖으로 넘어지는 민석.  
민석을 따라 앵글 밖으로 쫓고려왔는 선생님.  
빠각 소리와 함께 암전.

민석의 눈 클로즈업.  
눈을 번쩍 뜨는 민석.  
민석의 눈에서 줌 아웃.  
애플 전자기기들로 둘러싸인 방 안. 가운데 민석이 있다.

민석이 갇힌 방의 문 밖 비추며 민석의 고향소리 v.o.

아무렇지도 않게 교실로 다시 들어오는 선생님.  
말없이 수업을 재개한다.

얼빠진 표정으로 민석의 맥북을 보는 채유.

## S#6 학교 다섯째날

다시 수업시간.

채유의 책상에 놓인 온갖 애플제품들.

열심히 타자를 치는 채유.

아이들 전부 노트북에 들어갈 것 같이 집중하고있다.

점점 커지는 타자소리.

미친듯이 타자를 치는 아이들.

같이 타자를 치던 채유가 혼자 손을 멈춘다.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 채유에서 줌아웃되며 보여지는 교실 풀샷.

모두의 앞에 있는 맥북과 영혼없는 표정들.

모두 같은 옷들이 보이고 다른 학생들과 완벽히 같아진 채유가 보인다.

카메라가 뒤에서 채유의 맥북 화면을 잡는다.

화면에 잠깐 보이는 민석과 채유의 포토부스 사진.

컴퓨터 시점으로 채유 보여주고 맥북을 닫는 채유.

화면도 같이 닫히고 꺼진다.

암전.

제목이 나오고 엔딩크레딧.

-민석이 갇힌 방 애플제품이 모두 자기를 보고있고 카메라가 켜져있음.자기만보임

-내내 화이트다가 민석이 갇힌 방만 검정. 어두움

-조연 모두 눈을 깜빡이지 않음

-씬 4에서 채유의 의미심장한 얼굴 한 번 잡기(배신 암시)

-속느니 속이겠다 라는 걸 중고거래에서 보여주고 배신때리기

-2다음에 1 나오는 사건전개

-처음에 스티브잡스 교과서 꺼내자마자 친구4가 맥북 떨구고 끌려감

-그 때 상황파악하고있는 채유에게 사진찍자고 하는 친구들

-폰을 꺼낼려고 할 찰나 (애들이 너 폰 뭔데? 봐봐 꺼내봐) 민석이 자기폰으로 찍자며 폰을 꺼냄

-그 뒤로 어떻게 되는데? 하고 이어서.

-친구들의 대사도 인간적이어 보일 수 있음

-선생님 한 명으로 통일(선생의 캐릭터도 만들어줬으면)

-에어팟을 나눠끼는 장면-상징성을 나타냄-돌아다닐 때 민석이가 준 에어팟.(정 없으면 이것부터 써봐)